

高僧傳과 高僧文集의 集成

— 韓國高僧集의 集成 및 간행을 위한 試攷

황인규

동국대학교(서울)

1. 머리말
2. 고승전과 한국고승
 - (1) 중국과 일본 고승전의 한국고승
 - (2) 한국의 고승전과 고승
3. 고승문집의 집성과 자료
 - (1) 고승문집의 집성과 간행
 - (2) 고승문집의 번역과 자료
4. 맺음말

본고는 고승전류와 고승문집의 집성과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이다. 고승전류는 고려의 『해동고승전』 및 『삼국유사』, 조선의 『동국승니록』과 『동사열전』 등이 있지만 대개 중세 이후의 고승들의 것이다. 고대 고승들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고승전류에 실린 한국고승을 보강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 이후 등장하는 고승어록이나 조선시대 고승문집류, 중세이후의 고승비문 등도 고승 관련 자료 등이 추가 정리되어 『대장경』과 『한국불교전서』에 집성 번역되어 추가 간행되어야 한다. 고승이야말로 한국 역사를 전개하고 한국 불교를 주도하였던 주역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주제어

고승전, 고승문집, 대장경, 한국불교전서

1. 머리말

한국 1700년 불교사에서 고승은 수없이 많았을 것이나 그 기록이나 흔적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정사류인 『삼국사기』나 『고려사』는 주제사인 기전체로 서술되었지만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석로지나 왕사·국사전 등 불교인물에 대한 주제를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고려사』 종실열전에 왕자출신 승려는 대각국사 후, 도생승통정, 총혜수좌 경, 원명국사 징엄, 원경국사 총희, 소군 선사, 대선사 경지, 충명국사 각응, 석기 등이 실려 있을 뿐이다.¹⁾ 『고려묘지명』에 불교계의 國師 3건을 비롯해 승려들에 대한 기사 20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행스럽기까지 하다.²⁾ 조선시대 정사류인 『조선왕조실록』도 유교사관에 의해 서술되었기 때문에 고승들에 기록은 제한

1) 『고려사』 권90, 종실열전.

2) 김용선, 『고려 묘지명 집성』 상·하, 한림대학교출판부, 2001.

적·비판적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불교계 고승들에 관한 종합적인 기록인 고승전류는 고려중기의 『해동고승전』과 조선시대의 『동국승니록』, 『동사열전』 등이 있다. 중국의 고승전류에 한국의 고승이 적지않이 실린 것은 고려말 대문인 이색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동방의 고승(韻釋)이 중국에 들어가서 법을 이어받은 자가 대대로 사람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傳燈錄』을 읽고 『祖派圖』를 뒤져보면 족히 볼 수 있다”³⁾고 하였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고승전류에 실린 한국의 고승들의 사실도 참조 보장할 수 있다.⁴⁾

본고는 이러한 한국의 고승전과 중국과 일본의 고승전류 및 고승 관련 문집 저술류 등의 목록 및 그 주요내용을 종합 정리하고자 하였다.⁵⁾ 향후 이를 한국의 고승집으로 집성 및 번역하여 한국 고승 및 불교사 연구의 기본자료집으로 간행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색, 「送絶傳上人序」, 『牧隱文藁』卷8, 序.; 『동문선』 권87, 序, “吾東方韻釋 入中國 嗣法者代不乏人 讀傳燈錄 閱祖派圖 可見已”

4) 우리는 한국불교학과 불교사 연구자들이 한국의 고승전 외에 중국과 일본의 고승전류 및 고승문집류의 계기목을 진정 충실하게 활용하여 천착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본고를 작성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밝혀둔다.

5) 본고는 한국불교사연구소 제1차 집중세미나-한국불교사 기술의 몇 가지 문제들(2012년 6월 2일(토) 14:00 ~ 16:00,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발표한 원고의 일부를 정제해온 것이다.

2. 고승전과 한국고승

(1) 중국과 일본 고승전의 한국고승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최초로 편찬된 고승전은 중국 梁나라 때 慧皎가 지은 『高僧傳(梁高僧傳)』(14권)이다. 그 후 唐나라 道宣이 지은 『續高僧傳』(30권), 宋나라 贊寧이 지은 『宋高僧傳』(30권), 明나라 如惺이 지은 『大明高僧傳』(8권)⁶⁾이 간행되었는데 이를 묶어 四朝高僧傳이라 하며, 양·당·송 3대의 고승전을 三朝高僧傳이라고 한다. 그 밖에도 명나라의 明河가 지은 『補續高僧傳』(26권), 中華민국의 喻謙이 지은 『新續高僧傳』(65권) 등이 있다.⁷⁾ 그리고 『조당집』, 『전등록』, 『선림승보전』 등과, 일본에서 저술된 『원형석서』, 『본초고승전(일본고승전)』 등 고승전류에도 한국의 고승들이 입전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고승전과 여기에 입전된 한국의 고승들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梁高僧傳(梁傳)』(14권)은 불교가 전래된 後漢 明帝때부터 梁武帝 18년(519)까지 약 453년간 고승들의 사적을 저술한 것이다. 本傳은 譯經·義解·神異·習禪·明律·亡身·誦經·興福·經師·

6) 明의 如惺이 1617년(만력 45) 저술한 『大明高僧傳』(8권)은 贊寧의 『宋高僧傳』을 탈고한 989년에서 630년까지 南宋에서 明까지의 119명의 고승의 전기를 수록하였다. 梁나라 慧皎의 『고승전』에 의거하여, 譯經者·解義者·習禪者의 3편으로 나누어, 71인(正傳:138인, 附傳: 71인)의 고승을 수록하였다.

7) 중국의 고승전 가운데 『한글대장경』에 포함된 것은 『양고승전』과 『속고승전』이다. (한글대장경 ; 217~219. 사전부 ; 11~13: 이창섭 역, 『續高僧傳』 1~3, 동국대학교부설 동국역경원, 1997~2000.) 그리고 고승전이라 부르지 않는 않지만, 비구니의 사적을 담은 양나라 寶唱이 지은 『比丘尼傳』 등도 일종의 고승전류로 간주하기도 한다.

唱導 등의 10科로 분류하여 257명의 불교인물을 기재하였다. 附傳에는 243명의 고승이 실려 있는데 한국의 고승으로 입전된 인물은 고구려 도인, 승량, 석담시 등이다.

『續高僧傳(唐高僧傳, 唐傳)』(30권)은 『梁高僧傳』과 대비해서 『續高僧傳』이라고 부른다. 양나라부터 唐나라 태종 貞觀 19년(645)까지 144년간 고승의 행적을 집성한 것이다. 序錄(1권)과 本文(13권)에 『양고승전』과 동일한 譯經·義解·習禪·明律과 護法·感通·遺身·讀誦·興福 등 十科로 분류하여 596명의 고승(正傳 394인, 附見 208인)이 입전되어 있다. 그 가운데 습선·호법·독송 편에 신라의 圓光·자장, 백제의 慧顯이 정전에 입전되어 있으며, 附見된 승려는 고구려의 波若, 신라의 圓安, 圓勝, 고구려의 實法師, 자장의 제자 僧實 등 10여 인이다.⁸⁾

『宋高僧傳』(30권)은 道宣의 『唐高僧傳』의 마지막 기록인 貞觀 19년(645)으로 부터 2년후인 唐나라 太宗 貞觀 21년(647)부터 宋나라 太宗 端拱元年(989) 까지 약 362년간 唐나라와 宋나라 고승의 행적을 집성한 것이다. 雜科를 제외한 『속고승전』의 9과와 같은 체제를 따라 657인(本傳: 531인, 附見:126인)을 입전하였다. 그 가운데 원측, 순경, 의상, 원효, 진표, 현광, 무상, 지장, 무루, 원표 등이 한국의 고승이다.

또한 당나라 義淨이 지은 『大唐西域求法高僧傳』(1권)은 중국의 인도구법승 60여 명의 전기이다.⁹⁾ 그 가운데 신라의 고승 阿離耶跋

摩, 慧業, 求本, 玄太, 玄恪, 慧輪法師 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법사, 고구려 玄遊의 구법승이 찾아진다.

중국의 선종 사서로 南唐 招慶寺 선승 靜과 筠의 편지인 『祖堂集』(20권)은 과거 7불에서 시작해서 인도의 28대, 중국의 6대를 거쳐서 당말 오대의 선승 문정에 이르는 234인의 祖師와 전등사실을 논한 것이다.¹⁰⁾ 특히 馬祖道一(709~788)과 石頭希遷(700~790) 이후의 중국 강서와 호남의 선종승 등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신라 입당승이 다음과 같이 입전되어 있다.

권11 齊雲화상, 福淸화상

권17 雪嶽 陳田寺 元寂선사-도의, 東國 桐裏화상-동리

東國 實相화상-홍직, 東國 慧目山화상-현옥

溟州 堀山 故 通曉대사-범일, 崇巖山 聖住寺 故 兩朝국사-무염

雙峰화상-칠감선사, 백마화상-강릉, 담조, 관남화상-양양, 도상

권18 亭育

권20 五冠山 瑞雲寺화상-순지

『조당집』보다 50년 후, 북송의 眞宗 景德 1년(1004) 강서성 소주 승천사의 道原이 저술한 『傳燈錄』(30권)도 선종사서이다. 『전등록』은 과거 7불에서 인도의 28대, 중국의 6대를 거쳐 북송 초기

書; 26), 동국대학교불전간행위원회, 1980

10) 『조당집』은 한글대장경에 포함되어 있다. 『한글대장경』 77~78. 사전부 1~2.: 김월운 역, 『조당집』 1~2, 동국역경원, 2008. 다음과 같은 논고가 참조된다. 서경보, 「(조당집을 통한)한국선불교연구」, 서경보추모집간행위원회, 1996.; 고영섭, 「고려신개관 『조당집』 집성자 연구」, 『한국불교학』 31, 2002.

8) 金皓東, 「續高僧傳」과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 입전된 韓國 高僧의 行적, 『民族文化論叢』 20,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9.

9) 다음과 같은 번역문이 있다. 義淨 撰; 李龍範 譯, 『大唐西域求法高僧傳』(現代佛敎新

에 이르는 1701 祖師의 이름과 전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¹¹⁾ 한국 고승으로 입전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권10 신라 迦智선사, 신라 大茅화상

권12 신라 五觀山 順支대사,

권17 신라 清院화상, 신라 臥龍화상, 신라 瑞巖화상

신라 泊巖화상, 신라 大嶺화상,

권20 신라 雲住화상

권21 신라 龜山화상

권24 고려 雪嶽 兪光선사

권25 고려 道峰山 慧炬국사

권26 고려 靈鑿선사

중국의 고승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고승전에도 한국의 고승들이 입전되어 있다. 코칸 시렌의 『元亨釋書』와 사만의 『본조고승전』(75권), 道階의 『속일본고승전』(11권), 성돈의 『동국고승전』(10권) 등이 있다.¹²⁾ 그 가운데 『元亨釋書』(30권)는 일본의 코칸 시렌(虎關師鍊 1278~1346)이 1322년(元亨 2) 지은 일본 최초의 편년

체 고승전이다.¹³⁾ 『고승전』, 『송고승전』과 『속고승전』 등을 참작하여 傳·贊·論·表·志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전에 찬과 논이 서술되어 있다.¹⁴⁾ 제1~19권은 고승전으로 달마·安珍·無空 등 총 400여 고승의 행적을 실었으며, 제20~26권은 資治表이다. 538년부터 1221년까지 일본 역사와 불교사를 정리해 두었다. 제27~30권은 志 부분으로, 각종 종파의 교의, 다양한 불교문화를 소개하였다. 그 가운데 게재된 한국의 고승전은 다음과 같다.

권1 전지 1-1 고려 慧灌

권9 감진 4-1 백제 義覺, 백제 道寧, 백제 道藏

권16 역유 9 백제 曇慧, 고려 慧便, 백제 慧聰, 고려 慧慈,

백제 觀勒, 고려 僧隆, 백제 慧彌, 고려 曇微.

『日本高僧傳』(『본조고승전』, 75권)은 일본의 승려 시반(師蠻, 1625~1710)이 1702년에 지은, 일본의 승려전기 중 최고의 명작이다.¹⁵⁾ 『元亨釋書』를 모범으로 삼아 그 결함을 보충하여 목록인 總目과, 서문과 범례·참고문헌을 실은 卷首, 승려의 전기인 본문을 10科로 나누어 1,412명의 전기와 252명의 참고인을 서술하였다. 입전된 한국고승은 다음과 같다.

11) 최근에 전등록 번역본이 새로 나왔다.(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181, 사전부 1 : 『경덕전등록』 1~3, 1986.; 김월운, 『전등록』1·2·3, 동국역경원, 2008.; 문재현, 『전등록』 1~5, 바로보인, 1999.; 소공자, 『더 나아갈 수 없는(전등록강의 1~3)』, 골든북, 1986.) 다음과 같은 논고가 있다.(宗梵, 『異本 傳燈錄 檢討』, 『韓國佛敎學』 1, 1975.)

12) 『大日本佛敎全書』 104, 京都 : 佛書刊行會, 大正 6年(1917).

13) 『大日本佛敎全書』 권101, 京都 佛書刊行會, 大正 2年(1913). 최근 역주본이 간행되었다.(정천구,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사』 상, 하, 서울 : 씨아이알(불교연구총서 ; 5, 7), 2010)

14) 정천구, 『삼국유사』와 『겐코오샤쿠쇼(元亨釋書)』의 역사인식 비교, 『동양한문학회 연구』 23, 동양한문학회, 2006.

15) 『大日本佛敎全書』 권102·103, 京都 佛書刊行會, 大正 2年(1913).

담해, 도심, 관륙, 혜권, 도장, 혜권문인, 심상, 의립, 지봉, 의각, 다상, 혜편, 혜충, 혜자, 혜미, 담징, 지봉, 혜자, 혜충, 일라, 풍국, 도등, 도현, 도령, 상휘, 원세, 방제

이상에서 언급한 중국과 일본 고승전류에 실린 한국 고승은 『조선불교통사』 등에도 실려 있으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인물도 적지 않다.¹⁶⁾

위의 고승전류에 실린 한국 고승은 대부분 고대와 고려의 인물이다. 이를 후술하는 한국의 고승전류와 관련 제기록과 비교·종합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16) 그 외에도 중국과 일본의 고승전류에 실린 한국의 고승들은 더 많이 찾아진다. 선학의 연구를 참조하여 중국과 일본의 고승전류 및 불서에 나타나는 한국의 고승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문헌의 승전류 『新修科分六學僧傳』에 현광, 파약, 자장, 의상, 지장, 영조, 도육, 원측, 원광, 혜현, 원효, 진처, 원표, 무상 등의 고승과 『신승전』에 현광, 금사, 진표, 무상, 지장, 무루 등의 고승이 게재되어 있다. 천태 법화(응현)류 가운데 『불조통기』에 신라 전도자, 보운존자, 현광, 삼신사, 체관, 의천, 전교표, 世繫表, 의통, 무루, 金禪師/『관세음응현기』에 발정, 『홍찬법화전』에 석혜현, 신라 사미/『법화전기』에 연광, 혜현, 발정/ (6) 『석문자경록』에 홍륜사승, 신라선사, 순경/ 『삼보감응요약록』에 신라 兪/ 『불조역대통제』에 무루, 의천 등의 고승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선종사류의 『역대법보기』에 지덕사, 해동무상, 정천사무상, 부: 고구려 지덕, 신라 김화상/ 『지월록』에 고려관음, 원효, 대모, 탄연, 부: 해동원효 등의 고승이 실려 있다.

한편 일본문헌의 승전류인 『삼국불법전통연기』에 불법초전, 혜권, 지봉, 신라 심상, 신라 지평, 혜자, 혜관, 혜충, 관륙, 도장, 백제전계, 승정 관륙 혜관/ 『삼론조사전집』에 도량(승량), 혜권/ 『삼론조사전』에 혜권/ 『불법전래차제』에 백제국 선니 법명/ 『승강보임초출』에 백제국 선니 법명 / 『화엄조사회전』에 원효 등의 고승이 실려 있다고 한다.(김영태, 『한국불교사료-해외문헌초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81.)

(2) 한국의 고승전과 고승

한국 고승전의 효시는 신라 金大問의 『高僧傳』이지만 전해지지 않으며,¹⁷⁾ 『삼국유사』는 불교사서이지만 고승전은 아니다. 승전류로는 조선시대의 『東國僧尼錄』·『東師列傳』·『大東禪教攷』 등이 있다.

『해동고승전』(2권 1책, 필사본)은 1215년(고종 2)¹⁸⁾ 覺訓이 우리나라 고승들의 전기를 정리 서술한 현존 최초의 고승전류이다.¹⁹⁾ 10편으로 분류하고 불교 전래 초부터 편찬시인 고려 고종 때까지 약 9세기 동안의 고승을 서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⁰⁾

현존본은 완본이 아니며, 유통편 1의 1인 권1과 1의 2인 권2만이 남아 있으며, 유통편도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유통편 1의 1은 삼국시대 불교의 전래와 그 수용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1의 2는 求法僧에 관한 전기이다. 순도와 아도의 국적, 佛滅의 연대, 신라불교 전래설 등 이설도 실고 있다. 사료에 대한 비판보다는 고승 안함 등의 사례처럼 주관적으로 서술되었다. 覺德에서 安曇까지 중국 구법승과 阿離耶跋摩에서 마지막 玄太까지 인도구법승을, 2권에 35명(正傳:18인, 傍傳:17인)이 실려 있다. 정전에 순도·亡名·義淵·

17) 김상현, 「해동고승전의 사학사적 성격」, 『남사 정재각박사 고회기념동양학논총』, 1984.

18) 찬술 연대는 『해동고승전』 본문 중 “順도가 고구려에 들어올 때로부터 지금까지 844년이 지났다.”고 한 기록을 미루어 추산한 것이다.

19) 『한글대장경』, 동국대학교부설 동국역경원, 1994, : 장휘옥 역, 『해동고승전』.

20) 『해동고승전』의 流通篇 중 논에 大覺國師의 求法에 관한 언록이 있고, 崔滋가 『해동고승전』에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려고 默行者傳을 썼던 사실에서 『해동고승전』은 고려의 고승까지 서술되었다고 하겠다.

曇始·摩羅難陀·阿道·法空·法雲·각덕·智明·圓光·아리아발
 마·慧業·慧輪·玄恪·玄遊·현태 등의 고승을, 방전에 墨胡子·
 元表·玄彰·明觀·圓安·曇和 및 인도 승려 2인, 중국 승려 3인,
 玄照, 亡名 2인, 僧哲 등의 고승을 수록하였다.²¹⁾ 권별 수록된 고승
 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권1 유통 ; 순도, 亡名, 의연, 담시, 마라난타, 아도, 목호자, 원표,
 현창, 범공, 범운
- (2) 권2 유통 ; 각덕, 명관, 지명, 담육, 원광, 원안, 안함, 인도승 2인, 중
 국승 3인, 담화, 안홍, 아리아발마, 혜업, 혜륜, 현각, 현
 조, 망명 2인, 현유, 승철, 현대

『삼국유사』는 1281년(충렬왕 7)경에 一然이 편찬하였다. 王
 曆·紀異·興法·塔像·義解·神呪·感通·避隱·孝善 등 9편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5권 9편 144항목) 『삼국유사』는 불교적인 주제,
 특히 神異한 史話를 강조한 서술로 불교적 사관에 의해 편찬된 불
 교 역사적 서술이다. 왕력, 기이편과 효선의 편목설정이나 향가를
 수록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와 민족의 사실을 먼저 다루고

21) 다음과 같은 논고가 있다. 崔南善, 「海東高僧傳解題」, 『佛敎』 37, 1927.7; 안계현,
 「覺訓의 海東高僧傳」, 『韓國의 古典百選』, 『新東亞』 1969.1. 부록; 閔丙河, 「海東高
 僧傳」, 『韓國의 名著』, 玄岩社, 1969.; 李炳薰, 「海東高僧傳 解題」 『海東高僧傳』, 乙
 酉文化社, 1975.; 김상현, 「海東高僧傳의 史學史의 性格」, 『史學志』 15, 1981.; Peter
 H.Lee, 李鶴洙, 1929, 『영역본 海東高僧傳』 하버드대 연경학회총서, 1970.; 장휘옥,
 『해동고승전 연구』, 민족사, 1991.; 김대문, 각훈 공저 / 여성구 역 『화랑세기 해동고
 승전』, 지만지, 2008.

사회와 문화를 알리고 가정과 개인으로 귀결되는 내용이다. 체제는
 앞서 언급한 중국의 삼조고승전의 10科의 영향을 받았지만, 왕력·
 기이·효선 등의 편목을 새롭게 편성하였다.²²⁾

- (1) 흥법 3 ; 순도, 아도, 마라난타
- (2) 의혜 5 ; 원광, 보양, 양지, 혜숙, 혜공, 자장, 원효, 의상, 사복, 진표,
 승전, 심지, 태현, 법혜
- (3) 신주 6 ; 밀본, 혜통, 명량,
- (4) 감통 7 ; 경홍, 용천, 월명, 선율, 정수
- (5) 피은 8 ; 낭지, 연희, 혜현, 영여
- (6) 효선 9 ; 진정

그 후 승유역불기인 조선 중후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東
 國僧尼錄』(1권, 필사본)이 저술되었다. 성리학의 절대화가 강조되
 고 신라부터 조선중기 불교를 중흥했던 청허휴정과 그 제자 사명유
 정까지 고승들을 다루었다. 이름이 알려진 고승을 명승이라는 항목
 에서 다루고 비구니, 시승, 역승, 간승의 주제로 구분하여 서술하였
 다. 阿道·元曉·義湘 등 신라 고승 30여인과 義天·雲默·知訥 등
 고려 고승 20여인, 조선전기의 고승 10여인 등이 실려 있는데 열거
 하면 다음과 같다.

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삼국유사』 역주본 총서가 간행되었던 것은 매우 고무적
 이다.(강인구·김두진·김상현·장충식·황태강, 『역주 삼국유사』 1~5, 이회문
 화사, 2002~2003.)

- (1) 名僧; 본여선사, 혜철선사, 홍척선사, 무염선사, 현옥선사, 각체선사, 도균선사, 품일선사, 가지선사, 충언선사, 대모화상, 증선사, 척선사, 순지선사, 지리산화상, 흙충선사, 행적선사, 청허선사, 금장화상, 청원화상, 와룡화상, 서암화상, 박암화상, 대령화상, 대무위선사, 운주화상, 경유선사, 혜선사, 구산화상, 혜운선사, 설악 영광선사, 도봉산 혜거국사, 만항, 혼구, 혜근, 관선, 법언, 순응, 이정, 희량, 보조대사, 이거인, 보덕, 휴정, 유정, 화엄 월수좌.
- (2) 尼姑; 김씨
- (3) 詩僧; 대각국사, 무애지국사, 대감국사, 구담수선사, 무기, 수선사, 탁연사, 치악노승, 삼중공공, 인각선사, 정명선사, 성능, 무외, 탄연, 충활, 혜문, 원경, 수진, 의침, 정사.
- (4) 逆僧; 신돈
- (5) 奸僧; 보우

『동국승니록』은 고승의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다소 연대의 오류가 보이며, 문장의 조악함도 보이니 송유억불기 산중불교가 전개되는 시기에 저술된 고승전이라는 의의가 있다. 그 후 척불기인 조선말 1894년 해남 대흥사 고승 覺岸의 『東師列傳』(6권 2책, 필사본)이 저술된 것은 불교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에서 주목되는 사실이다. 『東國僧尼錄』보다는 조직적인 체제와 객관적인 서술 형태를 띠면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불교가 흥성했던 고대나 고려시대보다도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 고승을 더 많이 편성하였다. 아마도 역사의 현재성을 강조한 듯하다. 즉, 조선시대의 불교가

침체된 것이 아니라 산중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전개되었던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다. 조선시대의 고승 숫자에 보이듯이 조선시대 승려가 七班賤役に 종사하였다는 사실은 피상적인 불교 이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²³⁾

한국의 대표적인 고승 199명을 6편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즉, 제1편(20인)에 신라의 고승과 禪門九山の 개산조, 大覺國師·普照國師 등 고려시대의 고승 등이, 제2편(21인)에는 普愚 등 고려시대의 고승 3인과 己和 등 조선전기 고승 18인 등 21인이 수록되어 있고, 제3편(23인), 제4편(53인), 제5편(48인), 제6편(34인)은 조선중기 이후 고승이다. 제3권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각안이 주석하였던 해남 대흥사 주변의 고승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지역적 편중에 큰 아쉬움이 있다.²⁴⁾ 입전된 고승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권1; 아도화상, 원효국사, 의상조사, 자장법사, 진감국사, 지증국사, 무염국사, 김대성, 낭공대사, 도선국사, 혜철국사, 보조선사, 동진대사, 대각국사, 보조국사, 진각국사, 진정국사, 부암대사, 나옹왕사, 무학왕사
- (2) 권2; 태고왕사, 환암국사, 원진국사, 함허선사, 구곡왕사, 벽계대

23) 조선시대 양반들이 산사를 찾았을 때에는 주유와 기녀까지 동원해야 했으며, 유생들에 대한 대접에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망을 보는 望臺制度가 만들어지기까지 하였다. 그 때문에 생긴 相望峰 中望峰 下望峰이라는 지명도 생겨났다고 한다.(표창진, 「구한말 일본불교의 사상적 침투와 조선불교계의 동향」, 『외대사학』 11, 2000, 297쪽.) 하지만 이는 조선말의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4) 『동사열전』의 관련한 자세한 글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오경후, 「東師列傳의 史學史的 檢討」, 『사학연구』 63, 한국사학회, 2001.

사, 벽송선사, 부용조사, 경성대덕, 청허존자, 사명존자, 진묵조사, 편양종사, 소용종사, 풍담종사, 해운선사, 취여종사, 월저종사, 신해·보정, 송파대사,

(4) 권3 ; 백암종사, 무용법사, 화악조사, 설암종사, 환성종사, 벽하종사, 설봉종사, 상월종사, 호암종사, 함월종사, 만화강사, 연해강사, 영곡강사, 나암강사, 영파강사, 두툰대사, 묵암종사, 금주강사, 서암선사, 동월영흥, 동봉육일, 대인등전, 해봉성찬,

(5) 권4 ; 연담종사, 정암선사, 백련선사, 현해선사, 완호강사, 낭암강사, 연파강사, 백파강사, 양악선사, 은암강사, 설곡화상, 용암선백, 금계선사, 은봉대사, 환봉대사, 철우선덕, 화담강사, 설암선사, 수룡강사, 철경강사, 해봉강사, 호의대사, 하의대사, 초의선백, 송암대사, 칠선강사, 대은선백, 성담선백, 인암선백, 영허강백, 낙피산사, 설월대사, 제봉선백, 허주선백, 영산선백, 원암선백, 하은선백, 용호강백, 지봉강백, 침명강백, 경월선사, 회산강백, 이봉선백, 벽파선사, 용운선백, 화운선사, 방월선백, 자행선사, 청해대사, 완파대사, 만휴선백, 응화강백, 자서전(범해각안)

(5) 권5 ; 벽담선백, 퇴은선백, 인곡강백, 남호선백, 인곡강백, 남호선백, 문암강백, 영암선백, 혼성선백, 원담선사, 문담강백, 쌍월선백, 호봉선백, 철요선백, 한양선백, 서암강사, 침월선사, 금월선사, 포운선사, 보운선사, 일여선백, 종암강사, 회암선백, 연호대사, 영허선백, 무위선백, 해봉선사, 운파선사, 보경선사, 우감강백, 화월선사, 기봉선사, 환허강백, 함명강백, 설두강백, 경담강사, 용명선사, 영월선사, 금곡강사, 보문선사, 월

여선백, 금허선백, 호월선사, 원화강백, 상운선사, 덕송선사, 연주강백, 화선, 용파선사, 이침산,

(6) 권6 ; 우담강사, 혼허강백, 청연강백, 수성선사, 보제강백, 금성선사, 설우대사, 응룡선사, 금파선사, 월화강사, 호은강백, 원해강백, 경운강백, 응운강백, 구연강백, 벽련선사, 법해강백, 청담선사, 예암선사, 운담선사, 용월선사, 원응강백, 호연선사, 팔굉선백, 성담강백, 청악강백, 응암선사, 청호강백, 청봉선백, 취운강백, 자운선사, 금월선덕, 환명선사, 금월선덕, 환명선사, 회광강백.

그 후 고승전류는 아니지만 조선후기 실학자 다산 丁若鏞(1762~1836)이 저술한 『大東禪教考』(1권)도 주목된다.²⁵⁾ 『삼국사기』를 비롯한 『佛祖通載』·『傳燈錄』·『海東佛祖源流』 등에서 원사료를 뽑아 서술하고 사료를 보충하였으며, 고승과 주석을 가하였다. 삼국시대 이후의 불교사와 고승들의 전기를 다루고 있는데, 신라의 고승 如本·洪陟·慧徹·無染·玄昱·品日·無漏 등 30여인과, 崔致遠의 「四山碑銘」 소개 무염·釋澄·決言·道義 등의 선사들과, 『해동불조원류』 소개 阿道·神行·無上 등 수십여 인의 고승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다산의 사후 30여년 뒤에 태어난 茶松子 금명보정(1861~1930)은 『조계고승전』을 집필하였다. 보조국사 지

25) 『대동선교고』는 『大菴寺誌』 제4권에 합철되어 있으며, 일본 『續藏經』 乙 卷21套 213쪽에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 尹嗣의 발문이 있다. 崔南善, 「大東禪教考解題」, 『佛敎』 37, 佛敎社, 1927.7, 31~32쪽.

눌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3백86명의 고승을 다루었다.²⁶⁾

고승전류는 아니지만 고승의 계보를 정리한 조과도도 간행되었다. 고려 원간섭기에 『삼국유사』를 저술하였던 一然(1206~1289)의 祖派圖(2권)와 李藏用(1201~1272)의 『선가종과도』가 있었다고 하나 전해지지 않는다. 조선초 무학자초가 불교선종의 종파에 따른 법맥을 기록한 『불조종과도』(1권 1책, 목판본)가 1688년(숙종 14) 간행되었으나 역시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조선후기 고승 月渚道安(1638~1715)이 증보한 것이 전해지고 있다. 서술이 아닌 도표이다. 過去七佛로부터 석가모니 이후의 西天(인도) 28조, 중국 6조 등 33조사를 차례로 열거하고, 6조 慧能으로부터 고려말 懶翁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중심으로 삼고, 그 방계 및 분파의 법맥도 함께 기록하였다. 중국의 임제종 고승 석옥청공의 법을 이은 태고보우부터 조선중기 불교를 중흥한 청허휴정으로 이어지는 고승을 그린 법맥도이다.

100여년 후인 1764년(영조 40) 獅巖采永이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1권 1책)를 간행하였다. 王勃이 지은 석가모니의 행적을 신고 7佛(毘婆尸佛~석가모니불)을 서술하고 西天祖師(제1조 摩訶迦葉~제28 菩提達磨), 中華祖師(제1조 보리달마~제6조 慧能), 그

26) 보정은 그 이듬해인 1921년 보정은 『불조록찬송』을 저술하여 西天二十八祖 28인, 東土祖師 9인, 華嚴譯著講誦師 86인, 海東新羅列祖 22인, 九山祖師 9인, 海東列祖 112인, 曹溪宗師 105인의 순서로 각 조사에 대해 간략한 전기와 贊訟을 붙였다. 인도와 중국의 조사에 이어 신라와 9산선문 고려의 조사를 조계종사와 함께 수록하여 한국불교사전체를 시야에 놓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화엄조사를 별도로 채록하고 普照知訥 이후 조계종의 계보를 따로 정리하였다.(김용태, 「錦湏 寶鼎의 浮休系 정통론과 조계종 제창」, 『한국문화』 37,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리고 6조 혜능에서부터 분파된 제종파 가운데 臨濟宗의 법맥이 제 18대 법손인 평산처립과 석옥청공에 이르며, 이를 고려말의 나옹해근과 태고보우가 각기 법맥을 이었으며, 청허휴정의 문도 3파의 법맥도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고승과 수선사 16국사 등도 게재하였다.²⁷⁾ 이러한 조과도와 불조원류는 고승의 사자상승과 계통을 쉽게 알게 해주고 있다.

3. 고승문집의 집성과 자료

(1) 고승문집의 집성과 간행

이러한 고승전류 외에 개별적으로 서술된 저술류도 고려시대 이후 간행되었다. 대개 고승의 어록과 개인문집으로, 현재 전해지는 것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저술된 것이다. 고승전의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고승들의 상세하고 정통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고승문집류의 목록은 후술하는 바와같이 『한국불교전서』에 집성되었다.²⁸⁾

일제강점기 고승행장이나 비문이 불교잡지에 소개된 바 있다.²⁹⁾

27) 허홍식, 「『해동불조원류』의 고대와 중세의 산성」, 『김성준선생 정년기념사학논총』, 1985, :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28) 조선시대 불교 고승문집류의 목록을 다음의 논고에서 잘 소개하고 있다. 정병삼, 「I.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4. 불교계의 동향」, 『신편 한국사』 35(조선 후기의 문화), 국사편찬위원회, 1998

29) 朴允進, 「朝鮮高僧傳編纂에 對하여」, 『金剛山』10, 金剛山社, 1936. 6.

특히 주목되는 것은 권상로의 「朝鮮高僧時順考」이다. 이는 『(新)불교』 32집(1942년 1월)부터 43집(1942년 12월)까지 연재된 글이다. 남아있는 碑碣과 文集을 모아서, 1월 3일 원응국사 입적부터 12월 26일 지공화상 입적까지 고승의 탄생일과 입적일에 따라 행적을 발췌하여 정리한 글(각 8쪽 분량)이다.³⁰⁾

현대에 이르러 고승전이 영인 집성되거나 자료집이 발간되었다.³¹⁾ 『원효전집』의 간행이 그 대표적이다. 1949년 동국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에서 『신라불교전서』 제1집으로 『元曉大師全集』(전 10책)이 발행하였다. 그 후 1978년 조명기가 원효의 현존 저술 19부 22권을 『원효대사전집』(보련각)으로 편집 간행하였다.³²⁾

그 이듬해인 1974년 12월 불교학연구회 자료집 영인본 『한국고승집』(11책)이 간행되었다.(크라운판, 총 7천5백여 쪽, 경인문화사) 신라시대(4책)는 원효, 원측, 경흥, 의적, 태현, 명효 등이, 고려시대(3책)는 의천, 지눌, 백운, 나옹, 태고 등이, 조선시대(4책)는 함허, 허응, 편양, 소요, 정관, 제월, 중관, 진묵, 부휴, 취미, 백곡, 무용, 묵암, 허백, 율저, 환성, 함월 등의 고승이 집성되었다.

동국대학교 불전간행위원회는 『한국불교전서』를 간행할 계획을 세우고, 1970년부터 자료를 조사하고 목록을 정리하여 1976년 12

월 목록집 『한국불교찬술문헌목록』(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을 간행하였다. 삼국시대부터 한말인 1896년까지 찬술된 불서와 문헌자료의 목록을 현존본 뿐만 아니라 산실된 것까지 전부 시대순, 저자별로 수록하였다.³³⁾ 이 목록집을 기초로 하여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전 10책을 간행하였으며(삼국 3책, 고려 3책, 조선 4책), 그 후 보유편 4책이 추가 간행되었다. 신라 원측(613~696)의 『반야심경찬』으로부터 구한말 보정(1861~1930)의 『염불요문과해』에 이르기까지 총 171명의 고승과 석학이 남긴 288종의 문헌이 수록되었다. 『한국불교찬술문헌목록』에 없는 『한계집』, 『월봉집』, 『용암당유고』, 『사명당지파근원록』, 『몽암대사문집』, 『대둔사지』, 『일본표해록』, 『응운공여대사유망록』, 『소림통방정록』, 『극암집』, 『용악당사고집』, 『초당집』 등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대각국사 의천이 집성한 『續藏經』 간행 이후 우리나라의 불교전적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불교전서』에 실린 고승과 관련된 저술 목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韓國佛教全書』 소개 고승문집 목록

- 1) 제 3책 : 『往五天竺國傳(1卷)』(慧超), 『祖堂集所載順之和尙說(3篇)』(順之)
- 2) 제 4책 : 『大覺國師文集(殘簡)(13卷,23卷)』(義天).

30) 퇴경상노, 敎理: 敎史, 「朝鮮高僧時順告」 불교사(신판), 1940, ~ 퇴경상노, 敎史: 「조선고승시순고」, 불교사(신판) 1942, :成進文化社 編著, 『韓國學研究叢書』 7, 1973, 25~68쪽.

31) 金相鉉, 「元曉著述의 日本 流通과 그 意義」, 『韓國思想史學』 7, 1995, ; 김종인, 「원효(元曉) 저술 번역의 현황과 과제」, 『철학사상』 23, 2006.

32) 1987년 보조사상연구원의 개원으로 『보조전서』를 편찬한 이래 이의 한글 번역과 주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3) 한보광, 「불교학 연구에 있어서 『한국불교전서』의 위상」, 『電子佛典』 2, 2000, ; 고영섭, 「동대 “전인 교육” 백년과 “불교 연구” 백년 : 치밀한 사고력 · 활달한 문장력 · 넘치는 인간미의 구비와 실현」, 『불교학보』 45, 2006.

- 3) 제 6책 : 『曹溪眞覺國師語錄(1卷)』(慧謙), 『無衣子詩集(2卷)』(慧謙), 『海東高僧傳(2卷)』(覺訓), 『萬德山白蓮社第二代靜明國師後集(1卷,2卷)』(天因), 『萬德山白蓮社第四代眞淨國師湖山錄』(天頌), 『三國遺事(5卷)』(一然), 『海東曹溪第六世圓鑑國師歌頌(1卷)』(冲止), 『禪門寶藏錄(3卷)』(天頌), 『釋迦如來行蹟頌(2卷)』(雲默), 『天台末學雲默和尚警策(1篇)』(雲默), 『法華靈驗傳(2卷)』(了圓), 『白雲和尚語錄(2卷)』(景閑), 『太古和尚語錄(2卷)』(普愚), 『懶翁和尚語錄(2卷)』(慧勤), 『懶翁和尚歌頌(1卷)』(慧勤), 『普濟尊者三種歌(1卷)』(法藏). 『東門選所載麗大僧侶詩文』.
- 4) 제 7책 : 『佛祖宗派之圖(1卷)』(自超), 『涵虛堂得通和尚語錄(1卷)』(己和), 『梅月堂詩四遊錄(4卷)』(金時習), 『梅月堂詩四遊錄別集(1卷)』(金時習), 『梅月堂全集佛教關係詩文抄(1卷)』(金時習), 『碧松堂野老頌(1卷)』(智嚴), 『虛應堂集(2卷)』(普雨), 『懶庵雜著(1卷)』(普雨), 『清虛堂集(7卷)』(休靜), 『三老行蹟(1卷)』(休靜), 『釋迦如來行蹟頌撮要(1卷)』, 『通錄撮要(4卷)』
- 5) 제 8책 : 『浮休堂大師集(5卷)』(善修), 『靜觀集(1卷)』(一禪), 『映虛集(4卷)』(海日), 『四溟堂大師集(7卷)』(惟政), 『松雲大師奮忠紆難錄(1卷)』(申維翰 編), 『霽月堂大師集(2卷)』(敬軒), 『青梅集(2卷)』(印悟), 『奇巖集(3卷)』(法堅), 『逍遙堂集(1卷)』(太能), 『中觀大師遺稿(1卷)』(海眼), 『詠月堂大師文集(1卷)』(清學), 『鞭羊堂集(3卷)』(諺機), 『雲谷集(1卷)』(冲微), 『釋門家禮抄(1卷)』(眞一 編), 『翠微大師詩集(1卷)』

(守初), 『大覺登階集(2卷)』(處能), 『任性堂大師行狀(1篇)』(處能 撰), 『枕肱集(2卷)』(懸辯), 『虛白集(3卷)』(明照), 『栢庵集(2卷)』(性聰)

- 6) 제 9책 : 『月峯集(3卷)』(策憲), 『月渚堂大師集(2卷)』(道安), 『楓溪集(3卷)』(明察), 『雪巖雜著(3卷)』(秋鵬), 『雪巖禪師亂藁(2卷)』(秋鵬), 『無用堂遺稿(2卷)』(秀演), 『無竟集(3卷)』(子秀), 『無竟室中語錄(2卷)』(子秀), 『喚惺詩集(1卷)』(志安), 『影海大師詩集抄(1卷)』(若坦), 『虛靜集(2卷)』(法宗), 『南岳集(2卷)』(泰宇), 『松桂大禪師文集(3卷)』(懶湜), 『霜月大師詩集(1卷)』(璽符), 『天鏡集(3卷)』(海源), 『箕城大師念佛還鄉曲(1卷)』(快善 撰), 『月波集(1卷)』(兌律), 『龍潭集(1卷)』(槌冠), 『新編普勤文(1卷)』(有璣 集), 『好隱集(4卷)』(有璣), 『雪潭集(2卷)』(自優), 『野雲大禪師文集(3卷)』(時聖), 『鰲巖集(1卷)』(毅旻), 『龍巖堂遺稿(1卷)』(體照), 『大圓集(1卷)』(大圓)
- 7) 제 10책 : 『默庵大師詩抄(3卷)』(寂訥), 『秋波集(3卷)』(泓宥), 『秋波手束(1卷)』(泓宥),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1卷)』(采永 抄錄), 『四溟堂枝派根源錄(1卷)』(笹謙 撰), 『振虛集(2卷)』(捌關), 『蓮潭大師林下錄(4卷)』(有一), 『括虛集(2卷)』(取如), 『冲虛大師遺集(2卷)』(旨冊), 『蒙庵大師文集(2卷)』(箕頌), 『月城集(1卷)』(費隱), 『仁嶽集(3卷)』(義沾), 『鏡巖集(3卷)』(應允), 『三峯集(1卷)』(知濯), 『澄月大師詩集(3卷)』(正訓), 『大東禪教考(1卷)』(丁若鏞 撰), 『山史略抄(1卷)』(山史 集), 『兒庵遺集(3卷)』(惠藏), 『日本漂

海錄(1卷)』(賢正錄), 『應雲空如大師遺忘錄(1卷)』(空如), 『伽山藁(4卷)』(戒悟), 『艸衣詩藁(2卷)』(意詢), 『震默祖師遺蹟考(2卷)』(意詢撰), 『櫟山集(2卷)』(善影), 『涵弘堂集(2卷)』(致能), 『東師列傳(6卷)』(覺岸), 『梵海禪師文集(2卷)』(覺岸), 『梵海禪師詩集(2卷)』(覺岸), 『優潭林下錄(1卷)』(洪基)

8) 제 11책 高麗時代篇 : 『海東曹溪宓庵和尚雜著(1卷)』(冲止), 朝鮮時代篇 : 『寒溪集(1卷)』(玄一), 『草堂集(1卷)』(草堂), 『龍岳堂私藁集(1卷)』(慧堅), 『克庵集(3卷)』(師誠), 『鏡虛集(1卷)』(惺牛), 『龔默集(1卷)』(法璘), 『混元集(1卷)』(世煥), 『清珠集(1卷)』(治兆輯)

9) 제 12책 : 『萬德山白蓮社第四代眞靜國師 湖山錄(2卷殘卷)』(天頊), 『東溪集(4卷)』(敬一), 『海鵬集(1卷)』(展翁), 『一枝庵文集(2券殘卷)』(意恂), 『山志錄(1卷)』(心如), 『義龍集(1卷)』, 『草廣遺稿(2卷)』, 『曹溪高僧傳(1卷)』(寶鼎), 『栢悅錄(1卷)』(寶鼎), 『大東詠選(1卷)』(寶鼎), 『茶松詩稿(3卷)』(寶鼎), 『茶松文稿(2卷)』(寶鼎), 『曾谷集(2卷)』(徐致益), 『東溟遺稿(1卷)』(善知), 『藕堂詩稿(1卷)』, 『東國僧尼錄(1卷)』.

위의 『한국불교전서』에는 고승어록을 비롯한 고승의 저술류 뿐만 아니라 『화엄사적』 1· 『금산사사적』 1(중관해안), 『묘향산지』(설암추봉), 『해인사사적비문』(호운유기) 등의 사지류와 정시한의

『산중일기』³⁴⁾ 등 저술류도 포함되었다.

『동문선』이나 유학자의 문집과 사지류, 금석문 등도 고승의 연구에 참조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일제강점기 근대 불교학자들에게 주목되어 『퇴경당집』, 『조선불교통사』 등에도 실려 있으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에 한보광·임중욱 편 『韓國文集所載 佛教關聯詩文 資料集(5권)』(이회문화사, 2007)이 간행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신라 말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한국 역대 유학자들의 불교관련 기술을 총망라한 자료집(5권)이다.(1권은 색인집) 한국 최고의 지성 신라말 孤雲 崔致遠(857~?)의 『孤雲先生文集』부터 조선말기 유학자 耳山 朴在錫(1885~1931)의 『耳山先生文集』에 이르기까지 총 586명 학자들의 문집 가운데 불교관련 시문 1만2000여편이 수록되었다.

정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좀 더 전체적이고 포용적인 자료집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문집류 뿐만 아니라 금석문, 사지류, 지리지 및 읍지류, 야사 및 설화, 그리고 해외문헌집 등의 자료집이 편찬되고, 이에 대한 교감 및 역주작업이 체계적으로 장기간의 협동체제로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승문집, 사찰문집, 寺刹사전과 僧侶사전, 山誌 등에 대한 작업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료집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四庫全書』 등 중국 문집³⁵⁾이나 일본 문집류 등을 망라한 고승자료

34) 『산중일기』는 정신한의 문집인 『우담집』에 실려 있으며, 번역서가 간행되었다.(김성찬 역, 『산중일기』, 국학자료원, 1999.; 신대현, 『산중일기』, 해안, 2005.)

35) 중국의 문집 총서류인 『四庫全書』나 『四部叢刊』· 『元代文集珍本叢刊』· 『石刻史料新編』 등을 비롯한 中國側 資料 등이 그 대표적이다. 張東翼, 『元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출판부, 1997.

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불교찬술문헌목록집』³⁶⁾의 증보와 더불어 한국불교고승찬술목록집(가칭)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고승문집의 번역과 자료

한편 1964년 7월 동국대학교 부설 譯經院은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하여 제1책 阿舍部를 간행한 이래 2001년 제318책 『一切經音義 색인』을 간행하였다.³⁷⁾ 『大正新脩大藏經』의 분류에 따라 아함부·분연부·반야부 등으로 나누어 편집되었는데, 그 가운데 고승의 저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⁸⁾

- (1) 『한글대장경』 71(167) : 霽月堂集 4권(경헌)·浮休堂大師集 2권(선수): 한국불교전서 8, 喚惺集 1권(지안) 『無竟集』 2·『無竟室

36)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 東國大學校出版部, 1976.

37) 일본의 『新修大藏經』을 원본으로 삼고, 한국 고승들의 저술과 『南傳大藏經』 수록 문헌을 추가하였다. 史傳部에는 『신수대장경』에 없는 문헌도 적지 많이 포함되었다.

38) 고승의 저술이나 고승전이 아닌 저술은 제외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저술류이다.

- (1) 『한글대장경』 70(156) : 大乘起信論疏別記 1권(원효)·金剛三昧經論 3권(원효)·涅槃經宗要 1권(원효)·法華經宗要 1권(원효)·彌勒上生經宗要 1권(원효)·無量壽經宗要 1권(원효)·大慧度經宗要 1권(원효)·大乘六情懺悔 1권(원효)(155): 한국불교전서 1, 發心修行章 1권(원효): 한국불교전서 1
 (2) 『한글대장경』 72~76(160~163) 禪門拈頌集 30권(혜심): 한국불교전서 5
 (3) 『한글대장경』 135: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수기),
 (4) 『한글대장경』 136~137: 解深密經疏 10권(원측): 한국불교전서 1
 (5) 『한글대장경』 140: 梵網經述記 2권(승장)·菩薩戒本疏 2권(의적): 한국불교전서 2, 梵網經古迹記 4권(태현): 한국불교전서 3
 (6) 『한글대장경』 222: 釋華嚴教分記圓通抄 10권(균여)

中語錄』 2(無竟子秀): 한국불교전서 9

- (2) 『한글대장경』 82(165): 無用堂集 2권(수연)·天鏡集 3권(혜원): 한국불교전서 9, 鞭羊堂集 3권(언기): 한국불교전서 8
 (3) 『한글대장경』 83(166): 白谷集 2권(처능): 한국불교전서 8, 月渚堂集 2권(도안) 한국불교전서 9
 (4) 『한글대장경』 138: 海東高僧傳 2권(각훈): 한국불교전서 6, 東師列傳 6권(각안)·大東禪教攷 1권(정약용): 東國僧尼錄 1권: 한국불교전서 10
 (5) 『한글대장경』 139: 大覺國師文集 23권(의천)·大覺國師外集 13권(의천): 한국불교전서 4, 虛應堂集 2권(보우)·懶庵雜著 1권(보우, 태균) 한국불교전서 7
 (6) 『한글대장경』 151 : 『淸虛堂集』(淸虛休靜): 한국불교전서 8
 (7) 『한글대장경』 152 : 『四溟大師集』 7·『奮忠紆難錄』 1(四溟惟政)·『四溟堂枝派根源錄』 1(碧潭諶諶): 한국불교전서 8
 (8) 『한글대장경』 166(153): 勸修定慧結社文 1권(지눌)·修心訣 1권(지눌)·眞心直說 1권(지눌)·圓頓成佛論 1권(지눌)·看話決疑論 1권(지눌) 한국불교전서 4, 念佛要門 1권: 한국불교전서 6, 誠初心學人文 1권(지눌)·華嚴論節要序 1권(지눌)·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1권(지눌): 한국불교전서 4
 (9) 『한글대장경』 167(154): 懶翁和尚語錄 1권(혜근)·懶翁和尚歌頌 1권(혜근)·普濟尊者三種歌 1권(법장): 한국불교전서 6, 한글대장경 167(153) 太古和尚語錄 2권(보우): 한국불교전서 6
 (10) 『한글대장경』 168(159): 圓鑑國師集 1권(충지): 한국불교전서 6 한글대장경 168(154): 白雲和尚集 2권(경한): 한국불교전서 6

- (11) 『한글대장경』 169(164): 逍遙堂集 1권(태능)·靜觀集 1권(일선): 한국불교전서 8, 中觀大師集 1권(해안)·默庵集 3권(최눌) 한국불교전서 10
- (12) 『한글대장경』 224 : 蓮潭大師林下錄 4권(연담유일)·月城集 1권(월성비은)·仁岳集 3권(인악의점)·兒菴遺集 3권(아암혜장): 한국불교전서 10
- (13) 『한글대장경』 225: 屺衣詩稿 4권(초의의순)·一枝庵文集 2권(초의의순): 한국불교전서, 禪門四辨漫語 1권(초의의순)·東茶頌 1권(초의의순)·茶神傳 1권(초의의순): 한국불교전서 10, 한글대장경 225(159) : 震默禪師遺蹟攷 1권(초의의순): 한국불교전서 10, 한글대장경 225: 振虛集 2권(진허팔관)·梵海禪師詩集 2권(범해각안)·梵海禪師文集 2권(범해각안): 한국불교전서 10

이렇듯 『한글대장경』 외에 이미 번역된 것이나 새롭게 번역된 고승문집류 등이 더 있다. 즉, 개인 작업분이나 전집류나 개별적으로 간행된 것이다. 그 가운데 고승전류인 장휘옥의 역주 『해동고승전』과 김운세의 번역 『동사열전』의 번역 또는 역주작업은 주목된다.³⁹⁾

김달진·이이화, 『함허화상어록·함허당현정론』, 대양서적, 1973.

양대연 역, 『매월당전집』(5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1980.⁴⁰⁾

39) 장휘옥, 『해동고승전의 연구』, 민족사, 1991.; 김운세 역, 『동사열전』, 광계사, 1991.
40) 『매월당집』은 그 후에도 번역본이 간행되었다.(원영환 외 5인, 『국역 매월당전집』(1책), 강원도, 2000.)

이기영 역, 『한국의 불교사상』(한국사상전집 1), 삼성출판사, 1981⁴¹⁾
김달진 역, 한국의 사상대전집 15(虛應堂集, 淸虛堂集, 사명사대집, 진묵선사유고), 동화출판사 1977.

원효종 원효전서 국역 간행회, 『국역 원효성사전서(元曉聖師全書)』 6, 보련각, 1987.

진성규 역, 『원감국사집』, 아세아문화사, 1988.: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김달진 역, 『진각국사어록』(마음글방 17), 세계사, 1993.

허홍식, 『진정국사 천책과 호산록』, 민족사, 1995.

김화수 역, 『靑梅集』, 토방, 1999.

이영무 역, 『枕宏集』, 불교춘추사, 2001.

최병식·여한경 역, 『括虛集』, 불광출판부 2001.

김영옥, 『진각국사어록 역해』 1,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4.

배규범 역, 『허응당집』, 지만지고전천출 2008.

배규범 역, 『허정집』(법종), 지만지고전천출 2008.

리영자, 『천책스님의 호산록』, 해조음, 2009.⁴²⁾

41) 이 책에는 원효의 대승기신소·별기,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화엄일승법계도기증수록, 지눌의 근수정혜결사문·수심결·진심직설이 수록되어 있다.

42) 고승에 관련된 시문집도 간행되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영태, 『임란국국의 승장들』, 동국대 불전간행위원회 역경원, 1978.; 大東佛敎研究院 編, 『韓國高僧眞蹟詩文集』, 寶蓮閣 1975.; 이원섭, 『고려고승 한시선』, 동국대 불전간행위원회 역경원, 1978.; 이종찬, 『조선고승 한시선』, 동국대 불전간행위원회 역경원, 1978.; 허경진, 『고려시대 승려 한시선』(한국의 한시 38), 평민사, 1997.; 무산, 『한국 역대 고승의 茶詩』, 명상, 2000.; 踏談, 『한국의 시승(고려)』, 고은, 2006.; 로담, 『한국의 시승(조선)』, 문예출판부, 2007.

위의 번역서 가운데 『원효전집』의 국역이나 허흥식과 리영자의 『호산록』 역주나 김영옥의 『진각국사어록』 1은 학문적 깊이가 돋보이는 노작이다.

그리고 고승 저술이 영역된 것도 매우 주목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해동고승전』과 원효의 저술 등이다. 『해동고승전』은 Peter H.Lee(李鶴洙, 1929~)가 하버드대 연경학회총서로 1970년에 간행하였다. Robert E. Buswell Jr에 의해서 『금강삼매경론』이 Cultivating original enlightenment : Wonhyo's Exposition of the vajrasamadhi-sutr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로 간행되었다.

최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한불전역주사업단에서 2007년부터 3년간 작업 끝에 원측의 『仁王經疏』, 균여의 『一乘法界圖圓通記』, 충지의 『圓鑑國師集』, 백파의 『作法龜鑑』, 백암의 『淨土寶書』와 『栢庵淨土讚』, 풍계의 『日本漂海錄』 등 7책을 간행하였다. 『원감국사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음 번역한 것으로 비교적 자세한 주석을 달았다. 2020년까지 10년간 323편을 모두 완간할 계획이라고 한다.⁴³⁾

그리고 가산 지관스님에 의하여 『역대고승비문』(6책)과 『조선고승총비문』(1책)을 간행되었다.⁴⁴⁾ 역대고승비문은 1991년 시작해 10여 년간 계속해왔던 한국금석문 교감작업의 성과이다. 비문

총집은 조선의 역대 고승들은 물론 향곡·자운·성철·광덕에 이르는 고승의 행장이 담긴 비문 332기가 게재되었다.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6권)을 포함해 449기의 비문을 총정리하였다.⁴⁵⁾ 고승들에 관한 1차 사료를 총 정리했다는 점에서 조선불교 연구의 기념비적 이정표라고 할 만하다. 한국금석문종합영상시스템⁴⁶⁾에서 웹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고승비문이 검색되고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한국전통사상총서 한글 및 영역본(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전체 26권 가운데 한글번역본 13권을 완간하였다. 『한국불교전서』 중 대표적 고승의 문집 90여종을 선별해 한국불교 고승들의 사상을 집대성한 것이다. 한글역 총 13권 중 권1 『원효』, 권2 『지눌』, 권5 『화엄Ⅱ』, 권6 『제교학』, 권8 『선어록』, 권9 『시선집』, 권10 『문화』이다. 신라, 고려, 조선의 대표적인 고승 원효, 지눌, 휴정 스님의 문집과 공안집, 선어록, 시선집, 계율집, 비문집 등으로 편집되어 있다.

그리고 고승연구나 이해에 있어서 기본정보를 담고 있는 사전류도 간과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 한용운의 불교사전이 간행된 이후 1961년 5월 운허용하의 『불교사전』(법보원)이 간행되었다. 이 사전은 삽화만 18쪽에 걸쳐 81종이며, 그 가운데 고승 부분도 참조된다. 특히 고승인명사전인 『한국불교인명사전』(이정, 불교시대사,

43) 이러한 역주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누락된 고승전을 추가 작업을 하여 간행하여야 할 것이며, 원전 교감작업도 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44) 『校勘譯註韓國歷代高僧碑文』 신라 1, 고려 1~ 4, 조선 1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2~1999.; 『韓國高僧碑文總集-조선조. 근현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45) 조선, 근·현대 고승 비문집은 비문은 탁본을 우선으로 했으며, 탁본이 없는 경우에만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대교하였다. 하지만 탁본을 정밀하게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너무 지나치게 의역한 점은 매우 아쉽다.

46) <http://gsm.nricp.go.kr/>

1993.)이 간행되었다.⁴⁷⁾ 불교 전래 이후 1991년말까지 한국불교를 이끌어온 승려·신도 등 1천2백86명을 수록하였다.⁴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인물대사전』(1999) 가운데 고승 부분도 편찬 당시의 학계수준을 총망라한 것이다. 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7권, 총면수 24,748면, 6만 5천여 항목, 4만여 도판) 가운데 인물만을 재편집한 것이다.⁴⁹⁾ 그리고 조선후기 승려장인, 민간장인, 불화와 불상, 공예, 건축을 총망라한 사전도 간행되었으며,⁵⁰⁾ 고승진영⁵¹⁾과 고승유목⁵²⁾ 등도 간행되었다.

이렇듯 비교적 다양하게 고승 관련 자료집이 발간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저술된 고승전은 본격 학술서가 아닌 대개 교양 학술서

수준이다.⁵³⁾ 그리고 교계신문에 연재되거나 불교 고승전 가운데 주제별 고승전도 간행되었다.⁵⁴⁾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것은 고승을 선양하기 위한 학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보조사상연구회, 대각사상연구원, 의상만해연구원, 성철선사상연구회, 국제원효학회(1997), 일연학연구원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전근대 전통시대 고승전류와 고승문집류 등이 적지 않게 간행되었으며, 근현대에 이르러 『한국고승집』, 『한국불교전서』, 『한글대장경』, 번역문집류 및 사전류 등이 간행되었다. 이러한 저술 및 연구성과가 제대로 종합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7) 참고로 한국 최초로 현대 고승 40명의 고승집 『한국현대 고승대전집』(총40권), 2003이 간행되었다. 책과 함께 짝을 이룬 부록 CD로도 제작되었다.
 48) 중국 불교사에서 활약한 인물들의 인명사전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이 간행되었다. 중국 고대부터 청나라 말기까지 활동했던 불교 관련 인물 2,100여 명의 생애를 우리말의 한글 순에 따라 수록하고 있다.(한보광, 임종욱, 『학술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1.)
 49)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에서 한국불교의 주요고승 10명을 교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의상, 지눌 해심 편이 출간되었다.
 50) 안귀숙, 최선일,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동북아불교학연구총서)』(불교조소), 양사재, 2007. ; 안귀숙, 최선일,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불교회화), 양사재, 2008. ; 안귀숙, 최선일, 『조선후기불교장인명사전』(공예와 전적), 양사재, 2009. ; 안귀숙, 최선일, 『朝鮮後期佛敎匠人人名辭典』(건축과 석조미술), 양사재, 2010
 51) 김형우, 『고승 진영(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2006; 신대현, 『진영과 찬문』, 혜안 2006. 『진영과 찬문』은 조선후기 진영과 찬문을 통해 고승들을 조명하였다. 그 고승들은 벽송지엄, 청허휴경, 송과각민, 호암약휴, 호암약휴, 환성지안, 회암정혜, 호암제정, 영파성규, 눌암식활, 응파위성, 해봉전령, 화악지탁, 화담경화, 성담의전, 초의의순, 환월시현, 경봉의운, 의운자우, 금암천여, 성곡신민 등이다.
 52) 예술의전당, 『고승유목』, 우일출판사, 2004. 국립청주박물관 청명관 개관기념전 및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한국서예사특별전(24), 통도사성보박물관 부처님오신날 기념전 등에서 전시되었던 고승유목전의 서예 도록이다. 한국 옛 승려들의 붓글씨와 그림 등을 생생한 칼라화보로 담고 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고승전류의 한국고승과 고승문집의 집성과 자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고승전류는 고려의 『해동고승전』 및 『삼국유사』, 조선의 『동국승니록』과 『동사열전』 등이 있지만 대개 중세 이후의

53)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역대고승전』(김동화, 삼성문화재단, 1973), 『고려·조선의 고승 11인』(서경수 외, 신구문화사, 1976), 『韓國高僧逸話集』(徐京保 編, 日新社 1971: 여래, 1989), 『한국고승평전』(정휴, 흥법원, 1982), 『불교로 보는 우리역사』 1·2(서경보, 1995, 호암출판사), 『인물한국불교사 고승과 명찰』(황원갑, 책이 있는 마을, 2001), 『한국불교인물사상사』(민족사 1990), 『한국불교인물사상사』(승가대신문사, 2000), 윤청광, 『고승열전(25책)』(우리출판사, 2009), 『고승 다시보기』(황인규, 민창, 2005) 등이다.
 54) 즉, ‘불교계의 논사들’(< 불교신문 > 1993년 연재), ‘역사속의 왕사들’(김상영, < 불교신문 > 1996년 연재), 『역대호국승장』(윤선호, 한진출판사, 1979), 『선문선답-고승과 경전』(현각, 한결음더, 2011), 『한국을 빛낸 선사들』(최현각, 한결음더, 2011. 5. 30.) 등이다.

고승들의 것이다. 고대 고승들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고승전류에 실린 한국고승을 보강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 이후 등장하는 고승 어록이나 조선시대 고승문집류, 중세이후의 고승비문 등도 필히 참조되어야 하며, 아울러 고승사전류나 고승진영, 사지류, 화기집, 기타 고승 관련 자료 등이 추가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고승에 관련한 자료가 『대장경』과 『한국불교전서』에 집성되어 있지만 추가 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각국사 의천의 『속장경』 목록처럼 이른바 ‘한국고승찬술문헌목록’작업을 추진해야 하며, 기존의 원전에 대한 교감작업과 한글 번역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고승의 세계화를 위한 외국어 번역과 성자화⁵⁵⁾를 위한 작업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고려시대 전왕조의 고승 원효와 의상, 도선, 진표를 국가적 대성인으로 추념한 사실이 그 사례이다. 고승이야말로 한국 역사를 전개하고 한국불교를 주도하였던 주역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제 고승전류 관련 1차적 사료의 종합 정리후 그들이 한국불교사의 전개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고려 원간섭기 보각국사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는 엄밀한 의미의 근현대적 불교사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신이사관에 의해 불교사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국가와 민족으로 시작해서 가정과 개인에 이르는 사회와 문화를 고승을 중심으로 전개한 불교사의 효시라고 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고승관련 자료집을 종합 정리한 후 왕사와 국사, 삼화상, 순교승 등 불

교사를 주체적으로 전개한 고승들 중심으로 불교사가 저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승전과 고승집의 집성 및 간행되어야 할 것이다.

55) 예컨대 다음과 같은 논고가 그 본보기다.(조동일, 「한국의 高僧傳에서 세계의 聖者傳으로」, 『관악어문연구』 21, 서울대 국문과, 1996.)

참고문헌

—원전류

- 『고승전』, 『續高僧傳』, 『宋高僧傳』, 『大明高僧傳』, 『新續高僧傳』, 『祖堂集』, 『傳燈錄』, 『선림승보전』, 『元亨釋書』, 『日本高僧傳』(일본고승전), 『삼국유사』, 『東國僧尼錄』, 『東師列傳』, 『大東禪教攷』, 『佛祖通載』, 『傳燈錄』, 『海東佛祖源流』, 『불조종파도』, 『조계고승전』, 『元曉大師全集』, 『한국고승집』, 『한글대장경』, 『한국불교전서』, 『大日本佛教全書』.
- 김월운, 『전등록』1·2·3, 동국역경원, 2008.
- 문재현, 『전등록』1~5, 바로보인, 1999.
- 소공자, 『더 나아갈 수 없는(전등록강의 1~3)』, 골든북, 1986.
- Peter H.Lee, 李鶴洙, 1929, 『영역본 海東高僧傳』하버드대 연경학회총서, 1970.
- 장휘옥, 『해동고승전 연구』, 민족사, 1991.
- 김대문, 각훈 공저 /여성구 역 『화랑세기 해동고승전』, 지만지, 2008.
- 강인구·김두진·김상현·장충식·황폐강, 『역주 삼국유사』1~5, 이회문화사, 2002~2003.
- 김달진·이이화, 『함허화상어록·함허당현정문』, 대양서적, 1973.
- 양대연 역, 『매월당전집』(5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1980.
- 이기영 역, 『한국의 불교사상』(한국사상전집 1), 삼성출판사, 1981
- 김달진 역, 『한국의 사상대전집』15(虛應堂集, 淸虛堂集, 사명사대집, 진묵선사유교), 동화출판사, 1977.
- 원효종 원효전서 국역 간행회, 『국역 원효성사전서(元曉聖師全書)』6, 보림각, 1987.
- 진성규 역, 『원감국사집』, 아세아문화사, 1988.: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 김달진 역, 『진각국사어록』(마음글방 17), 세계사, 1993.
- 허홍식, 『진정국사 천책과 호산록』, 민족사, 1995.
- 김화수 역, 『青梅集』, 토방, 1999.
- 이영무 역, 『枕宏集』, 불교춘추사, 2001.
- 최병식·여한경 역, 『括虛集』, 불광출판부 2001.
- 김영옥, 『진각국사어록 역해』1,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4.
- 배규범 역, 『허응당집』, 지만지고전천줄, 2008.
- 배규범 역, 『허정집』(법종), 지만지고전천줄 2008.
- 리영자, 『천책스님의 호산록』, 혜조음, 2009.
- 김성찬 역, 『산중일기』, 국학자료원, 1999.
- 신대현, 『산중일기』, 혜안, 2005.
- 한보광, 임종욱, 『학술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1.
- 張東翼, 『元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出版部, 1997.
- 가산불교문화연구원, 『校勘譯註 韓國歷代高僧碑文』신라 1, 고려 1~4, 조선 1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2~1999.
- 가산불교문화연구원, 『韓國高僧碑文總集-조선조, 근현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 김용선, 『고려 묘지명 집성』상·하, 한림대학교출판부, 2001.

—단행본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한국불교찬술문헌목록』,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76.

- 김영태, 『임란구국의 승장들』, 동국대 불전간행위원회 역경원, 1978.
- 大東佛敎研究院 編, 『韓國高僧眞蹟詩文集』, 寶蓮閣, 1975.
- 이원섭, 『고려고승 한시선』, 동국대 불전간행위원회 역경원, 1978.
- 이종찬, 『조선고승 한시선』, 동국대 불전간행위원회 역경원, 1978.
- 허경진, 『고려시대 승려 한시선』(한국의 한시 38), 평민사, 1997.
- 무산, 『한국 역대 고승의 茶詩』, 명상, 2000.
- 路談, 『한국의 시승(고려)』, 고은, 2006.
- 로담, 『한국의 시승(조선)』, 문예출판부, 2007.
- 안귀숙, 최선일,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동북아불교학연구총서)』(불교조소), 양사재, 2007.
- 안귀숙, 최선일,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불교회화), 양사재, 2008.
- 안귀숙, 최선일, 『조선후기불교장인인명사전』(공예와 전직), 양사재, 2009.
- 안귀숙, 최선일, 『朝鮮後期佛敎匠人名辭典』(건축과 석조미술), 양사재, 2010.
- 김형우, 『고승 진영(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2006; 신대현, 『진영과 찬문』, 혜안 2006.
- 예술의전당, 『고승유묵』, 우일출판사, 2004.
- 김동화, 『한국역대고승전』, 삼성문화문고, 1973.
- 서경수 외, 『고려·조선의 고승 11인』, 신구문화사, 1976.
- 서경보, 『한국고승일화집』, 일신사, 1971: 여래, 1989.
- 정휴, 『한국고승평전』, 흥법원, 1982.
- 서경보, 『불교로 보는 우리역사』 1·2, 호암출판사, 1995.
- 황원갑, 『인물한국불교사 고승과 명찰』, 책이 있는 마을, 2001.

- 불교신문사,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민족사 1990.
- 중앙승가대, 『한국불교인물사상사』, 승가대신문사, 2000.
- 윤청광, 『고승열전(25책)』, 우리출판사, 2009.
- 황인규, 『고승 다시보기』, 민창, 2005.

—논문류

- 宗梵, 「異本 傳燈緣 檢討」, 『韓國佛敎學』 1, 1975.
- 김영태, 『한국불교사료-해외문헌초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81.
- 김상현, 「해동고승전의 사학사적 성격」, 『남사 정재각박사 교회기념동양학논총』, 1984.
- 崔南善, 「海東高僧傳解題」, 『佛敎』 37, 1927.7
- 안계현, 「覺訓의 海東高僧傳」, 『韓國의 古典百選』, 『新東亞』 1969.1. 부록.
- 閔丙河, 「海東高僧傳」, 『韓國의 名著』, 玄岩社, 1969.
- 李炳薰, 「海東高僧傳 解題」 『海東高僧傳』, 乙酉文化社, 1975.
- 오경후, 「東師列傳의 史學史的 檢討」, 『사학연구』 63, 한국사학회, 2001.
- 崔南善, 「大東禪敎考解題」, 『佛敎』 37, 佛敎社, 1927.7.
- 김용태, 「錦溟 寶鼎의 浮休系 정통론과 조계종 제창」, 『한국문화』 37,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
- 허홍식, 「『해동불조원류』의 고대와 중세의 산성」, 『김성준선생 정년기념사학논총』, 1985, :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 권상로, 「朝鮮高僧時順考」, 『(新)불교』 32~43, 1942. 1~1942.12.
- 조동일, 「한국의 高僧傳에서 세계의 聖者傳으로」, 『관악어문연구』 21, 서울대 국문과, 1996.

Goseung-jeon(高僧傳) and the collection of *Goseung-munjip*(高僧文集)

—A draft for a collec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Goseungjip*(韓國高僧集)

Hwang, In-gyu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shows a class of *Goseung-jeon*(高僧傳, highly virtuous Buddhist stories) and a collection and reference of *Goseung-munjip*(高僧文集, highly virtuous Buddhist story books). A class of *Goseung-jeon* are just like the 『*Haedong-goseung-jeon*(海東高僧傳)』 and 『*Samguk-yousa*(三國遺事)』 in the Koryödynasty and 『*Dogguk-seongni-rok*(東國僧尼錄)』 and 『*Dongsa-yoel-jeon*(東師列傳)』 in the Chosön dynasty but most of them are Buddhist monks(高僧) after the middle ages. In the case of ancient Buddhist monks, they can supplement in Japan's and China's *Goseung-jeon*. And a quotation books from Buddhist monks after the Koryödynasty, a collection of *Goseung-munjip* or a monumental inscription of Buddhist monks after the middle ages should be classified, translated and republished on the Tripitaka and 『*Hangukbulgyojeonsu*(韓國佛教全書)』. So we need to focus on the fact that Buddhist monk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n Buddhism and expanded the Korean history.

Key Words

Goseung-jeon(高僧傳, highly virtuous Buddhist stories),
Goseung-munjip(高僧文集, highly virtuous Buddhist story books),
Tripitaka, *Hangukbulgyojeonsu*(韓國佛教全書)

✎ 투고일자 2012.7.15 | 심사일자 2012.8.4 | 게재확정일자 2012.8.8